



미 증시, 소매판매 부진, 부채한도 협상에 하락

미국 증시 리뷰

16 일(화) 미국 증시는 미국 4 월 소매판매 예상치 하회, 훈디포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부채한도 협상 실패에 낙폭을 확대하며 마감. (다우 -1.01%, S&P500 -0.64%, 나스닥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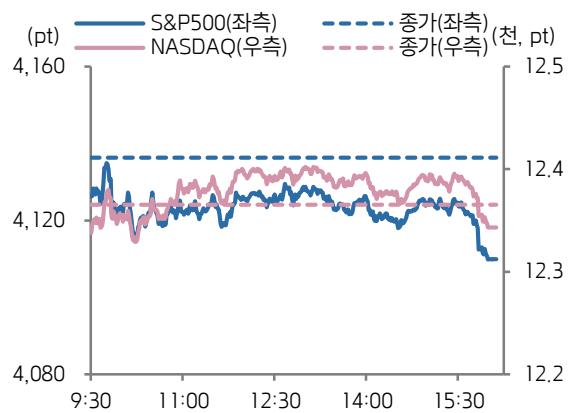
미국 4 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예상 4.2%, 전월 2.4%), 전월대비 0.4%(예상 0.8%, 전월 -0.7%) 기록하며 예상치는 하회했으나 올해 1 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플러스 전환. 자동차를 제외한 균원소매판매 역시 전월대비 0.4%(예상 0.4%, 전월-0.5%) 기록. 자동차 및 부품이 MOM 전월 -1.4%에서 0.4%, 건설자재 -3.8%에서 0.5%, 외식서비스 0.3%에서 0.6%로 상승한 영향이 컸고 그외에도 가구, 음식료, 의류, 백화점 등에서 감소폭을 축소. 4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예상 0.0%, 전월 0.0%)로 예상치 상회, 기업재고는 전월대비 -0.1%(예상 0.0%, 전월 0.0%)로 감소.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회동하여 부채 한도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 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 옐런 재무장관은 "디플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공황을 일으켜 국제금융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

로레타메스터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는 "나는 정책 금리가 향후 인상과 하락 양쪽으로 모두 동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데이터 상으로 금리를 중단할 수준은 아님을 시사.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연은 총재는 6 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지표에 달려있으며 긴축의 누적 효과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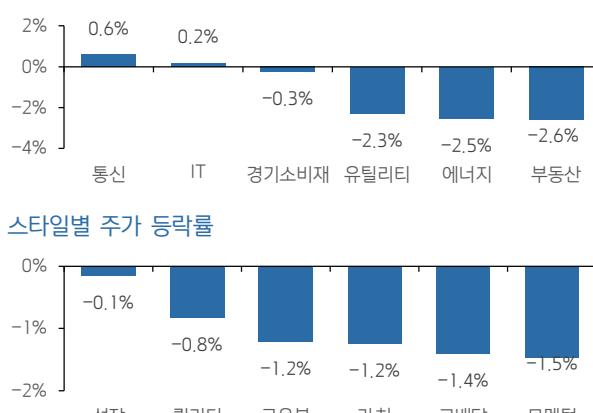
통신(+0.6%), IT(+0.2%), 경기소비재(-0.3%) 업종은 강세, 부동산(-2.6%), 에너지(-2.5%), 유틸리티(-2.3%) 업종은 약세. 훈디포(-2.15%)는 1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액이 -4.2% 감소하며 예상치를 하회하고, 연간으로 매출이 감소할것으로 전망한 영향으로 약세. CFO 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과 서비스로의 지출 행태 변화, 지난 봄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부의 추위가 예상보다 낮은 분기 실적에 한몫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80.24	+0.04%	USD/KRW	1,338.82	+0.16%
코스피 200	325.31	+0.26%	달러 지수	102.56	+0.13%
코스닥	816.75	+0.27%	EUR/USD	1.09	+0%
코스닥 150	1,233.06	+1.16%	USD/CNH	7.00	-0.01%
S&P500	4,109.90	-0.64%	USD/JPY	136.34	-0.04%
NASDAQ	12,343.05	-0.18%	채권시장		
다우	33,012.14	-1.01%	국고채 3년	3.240	-3.5bp
VIX	17.99	+5.08%	국고채 10년	3.302	-3.2bp
러셀 2000	1,736.18	-1.44%	미국 국채 2년	4.082	+7.2bp
필라. 반도체	3,048.71	-0.13%	미국 국채 10년	3.534	+3.2bp
다우 운송	13,645.16	-1.45%	미국 국채 30년	3.854	+1.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5.51	-0.02%	WTI	70.61	-0.35%
MSCI 전세계 지수	648.23	-0.52%	브렌트유	74.91	-0.43%
MSCI DM 지수	2,802.39	-0.61%	금	1992.6	-0.02%
MSCI EM 지수	979.24	+0.18%	은	23.74	-1.62%
MSCI 한국 ETF	59.59	-1.05%	구리	365.45	-2.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증시 약세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 출발 가능성
-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뉴스풀로우
- 전일 급등한 엔터주들의 주가 모멘텀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5 일 반등에 성공했던 미국 증시가 16 일에는 재차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연준 긴축, 16 일 협상이 결렬된 부채한도 문제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이날 발표된 미국의 4 월 산업생산(0.5%MoM vs 컨센 -0.1%, 3 월 0.0%), NAHB 주택시장지수(50.0 vs 컨센 45.0, 3 월 45.0) 등 여타 주요 실물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애틀랜타 연은의 GDP NOW 모델 상 2 분기 성장률이 2.7%로 제시되면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한 상황. 이는 한동한 침체 우려를 표명했던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날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반면 CME Fed watch 에서는 6 월 동결 확률이 83%).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4 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0.4%MoM vs 컨센 0.8%)나 전년동월대비(1.6%YOY vs 컨센 4.2%) 모두 크게 부진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미국 경기는 둔화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음. 즉,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 이로 인한 수요 단의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 5 월 FOMC 부로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라는 전제 하에 미국 경기 침체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마주하는 장세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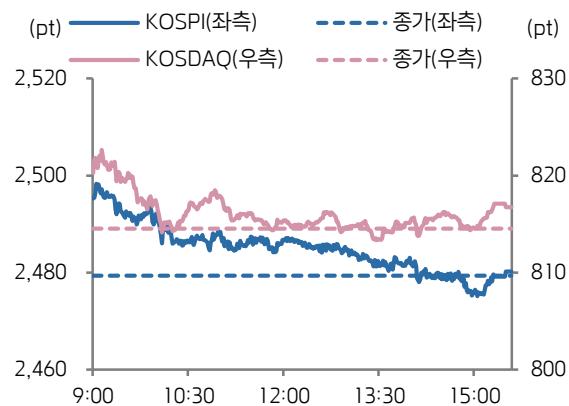
이에 더해 주식시장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요인은 중국 경제와 관련이 있음. 전일 발표된 중국의 4 월 소매판매(18.4%YoY vs 컨센 21.9%), 산업생산(5.6%YoY vs 컨센 10.9%). 등 실물경제지표가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을 유발했던 상황. 이처럼 5 월 이후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잇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의 급락(16 일 기준 26.4pt vs 4 월말 148.3pt)을 초래. 이로 인한 위안화 약세, 중국발 수요 둔화 불안감이 철강, 기계 등 국내 중국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 경제지표는 지난해까지 제로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충격의 기저효과로 수치 자체는 높게 나오겠으나,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 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 현재 주요국들의 1 분기 실적시즌 모멘텀 종료 이후 2 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 변화가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이 같은 G2 국가들의 경기 경로는 기업들의 전방 수요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 주식시장은 매크로에 종속되는 국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기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등에 힘입어 반도체주, 엔터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 지표 부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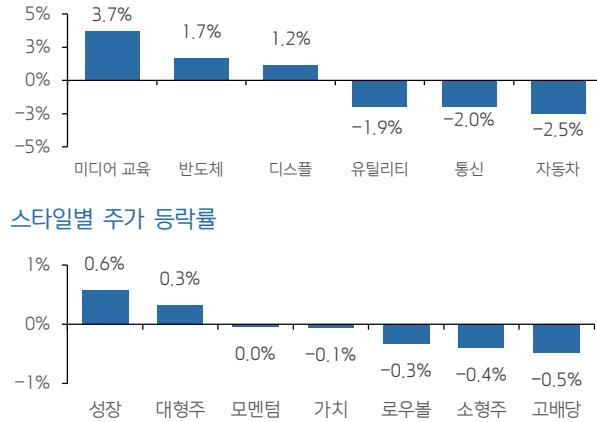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소비 경기 둔화, 부채한도 협상 결렬 등 미국발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재차 전개될 것으로 예상.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최근 2 차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당 업종에서 이탈한 수급이 대형주 내에서는 반도체, 중형주&소형주 내에서는 엔터 업종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업황 텐어라운드, 실적 가시성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특정 종목이 있음을 감안 시 해당 업종 내에서도 종목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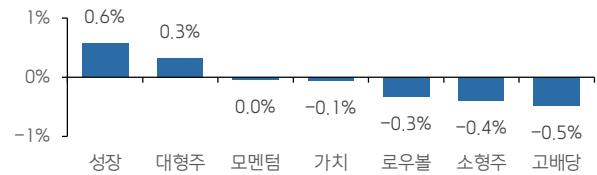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